

# 선진화된 포장기법 통해 골판지 수출포장 선도

## 일류 수출포장 브랜드 만들어나가



김 영 수  
인팩글로벌 대표

수출포장은 기계부품, 대형, 전자제품, 계측기, 실험장비, 자동차부품, 금속재료, 전기부품 등 중량물의 운송, 적재, 출하, 수출시에 사용되는 포장으로 보호성,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생산성 등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골판지 상자가 포장재료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출 포장용 상자로는 목재상자와 골판지 상자로 나뉘어 지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목재의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요구하게 돼 목재 상자와 목재 파렛트의 대체 포장재인 골판지 상자와 종이 파렛트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2004년 설립된 인팩글로벌(대표 김영수)은 골판지 수출포장 전문업체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원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포장기법을 활용한 지역별 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다.



▲ 인팩글로벌이 생산하는 수출포장

인팩글로벌의 가장 큰 특징은 골판지로 수출포장을 의뢰하는 업체에게 수량에 관계없이 제품을 모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던 2004년도에 목재포장의 대체 포장재인 골판지 수출포장 20박스를 구입하기 위해 국내 골판지 수출포장 제조업체들에게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 발주 수량이 100박스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필요수량이 20박스임을 감안 할 때 100박스

는 5개월분의 재고였을 뿐 아니라 100 박스를 적재할 공간 또한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량포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공급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김영수 사장은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소량포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넓혀나간다.

이후 인팩글로벌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골판지 상자와의 구조설계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2월 조립이 용이한 골판지 상자를 개발,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포장컨설팅 전문 부서와 3D 패키징 디자인 부서와 신설,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팩글로벌은 지난 5월 고강도 골판지 상자로 미래 패키징 신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4백여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인팩글로벌의 고강도 골판지 상자 TPS(Total Packaging Solution)는 중량물 포장에 가능한 친환경 수출용 포장 상자로서, 개폐기능이 있어 작업자들의 작업 효율성 및 다양한 포장기법을 이용해 포장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를 줄여주는 다기능의 상자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사용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재질이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방역에 대한 부담과 폐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자 자체의 중량이 가볍고 컨테이너 내부의 습기에 강하여 전세계 모든 지역으로 수출



◀ 지난 5월 고강도 골판지 상자로 미래 패키징 신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 INPACK GLOBAL

이 가능하다. 인팩글로벌에서는 목재포장상자의 단점인 엔드유저가 사용 후 폐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목상자의 방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점, 방역으로 인한 소량다품종 생산에 많은 추가비용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포장재의 개발을 추진하여 TPS를 개발하였다.

인팩글로벌의 TPS는 골판지에 종이앵글을 덧대어 5톤 이

상의 수직압축강도를 견딜 수 있어 다단 적재가 가능하며, 캡과 상자, 파렛트를 일체화시켜 사용이 용이하고 기업의 환경에 맞는 파렛트를 선정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종이앵글과 앵글 사이에 골판지를 끼워 열고 닫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자내의 적입률을 증가시키고, 벌크(볼트, 파이프, 분말, 레진 등)포장에도 사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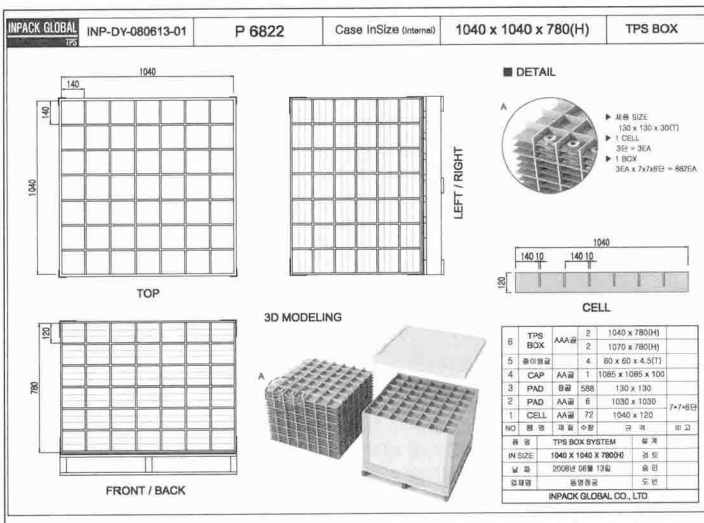
하다.

“TPS는 목재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포장으로 원가절감/운송비절감/산업안전재해예방/친환경포장/무방역처리/충격완화/포장시간단축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고강도 골판지 상자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강화된 환경 규제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기업들에게 목재포장의 대체 포장재로서 대안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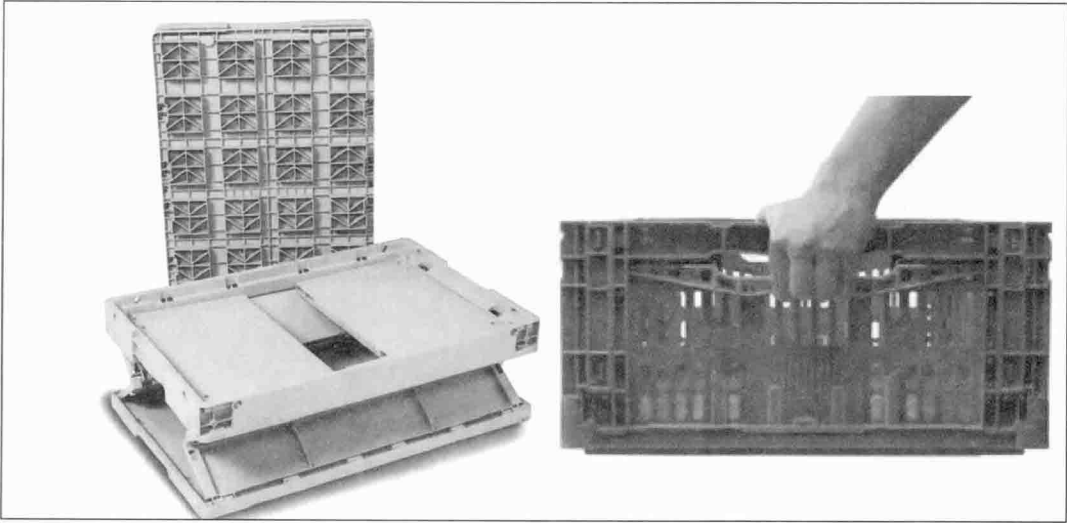
이 뿐만 아니라 인팩글로벌은 해외에서 이미 일반화된 플라스틱 회수용 상자를 지난 해 독일 S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포장소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다양화 했다.

인팩글로벌의 접이식 플라스틱 회수용 상자는 양면개폐가 가능하여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고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부구조 설계가 가능하여 다양한 업종에 적용된다.

접이식 플라스틱 액체상자는 액상을 충전한 상태에서 최대5



▲ 3D 포장 제안서



▲ 접철식 플라스틱상자

단, 미사용시 접은 상태에서 최대 12단까지 적재 가능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물류비를 대폭 절감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선진화된 포장기법을 통해 수출포장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인팩글로벌.

김 사장은 “오늘날 변화하는 구매패턴에 따른 새로운 포장 설계 및 포장구조 개발에 대한 과제는 인팩글로벌의 사명”이라며 “수출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출포장을 만들고 지구환경보존의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와 기업에 든든한 협력업체로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팩글로벌은 TOKYO PACK 2008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 우수포장으로 제품을 전시, 수출포장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렸다.

또한 골판지 포장개발의 역량을 인정받아 경기도 패키징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회원업체로 등록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포장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여 포장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수 사장은 인재중시를 통한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기본경영 방침으로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고객가치 극대화를 통한 회사의 가치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이 교학상

장을 통해 가족처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일터분위기에 크게 기인한다는 신념으로 “따뜻한 경영”을 모토로 삼고 있다.

김 사장은 “인팩글로벌은 제품에 따른 최적의 포장설계를 통한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고 최고의 컨설팅전문기업을 목표로 경주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포장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일류 수출포장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선 기술로 일류 수출포장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팩글로벌. 미래가 더욱 밝은 기업임이 틀림없다. ☐

이한열 기자